

“외투, 韓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할 것”

산업부,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에쓰오일 대표 ‘금탑산업훈장’ 등
외국인 투자유공자 40명에 표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5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간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장,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외교사절단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 40명의 외국인 투자 유공자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인 에쓰-오일(S-OIL)의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노성 전무는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양산 성공과 대규모 투자 확대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이해진 부사장, 안랩 김기인 부사장,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터리얼즈 홍권화 이사, 에드워드코리아 임우식 사장,

린텍코리아 조병천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은 엘에치이 최용수 전무,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김형주 이사, 동신포리마 박영대 대표, 한국사이언스코 서영훈 대표, 충청남도에 돌아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 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의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ESG 경영 사례와 외투기업의 국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투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의 품질·가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 500억 투입 가용물량 분산 안정적 공급

송미령 농식품장관, 가락시장 방문 배추·무 등 재료 출하상황 등 살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김장재료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작황 관리를 강조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한 원활한 물량 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 특히,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을 만난 자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고, 주 재료인 배추·무 재배면적이 증가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

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매법인에는 산지작황 및 소비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와 무 4만7000톤(t)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또 (가칭) ‘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024년 5.4%→2027년 10%) 하는 개선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중앙회 ‘인적쇄신’… 신뢰회복 3대전략 마련

대표와 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 투입

농협중앙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는 며칠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

적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꾼다. 대표와 임원,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에게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의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방

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농협 혁신TF’도 발족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유관 봉사단체 등 500여 명이 지난 12일 배추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가스공사

가스공, 사랑의 김치 3400포기 담가

취약계층 등 1000곳에 전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온기 넘치는 식탁을 선물하고자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인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유관 봉사단체 등 500

여 명이 참여해 배추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는 대구 동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장애인·보훈단체 등 1000여 곳에 전달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행사는 민·관·공이 함께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혁신 아이디어 공모 ‘LX플랫폼사업체’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전은 환경행정의 품질 향상과 행정업무 자동화 등 수요자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도시하천 수질환경 예측·해결 모델(LX플랫폼사업체)’이 차지했다. 수질 측정망과 사물인터넷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녹조나 악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로 지자체가 선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위성·수문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기반 녹조 선형 예측 및 최적 대응 시스템(김이런 씨)’이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차전지 등 국제표준 25종 개발 나서

국표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를 포함해 총 25종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상용, 차세대 및 사용 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개발, 국가표준 10종 및 단체표준 6종을 제정한다.

우선 ‘상용 이차전지’와 관련해 셀 역폭주 발생 가스 분석방법, 상태 정보 분석방법,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음극재의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이차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박·드론·로봇·건설기계용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신규 제정할 계획이다.

향후 주력 제품이 될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전고체전지의 고체 전해질 분석방법, 리튬황전지와 소듐(Na)이온전지의 셀 성능·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해 쌀 생산량 354만t… 역대 2번째 적어

데이터처, 생산량 4년 연속 감소세

올해 쌀 생산량이 354만 톤(t)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며 역대 2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벼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 및 농작물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작년보다 1.3%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란 지난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재배면적 축소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8000헥타르(ha)로 지난해보다 2.9% 줄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소를 보였다. 이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정생산 정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종=김연세 기자